2026.04.22

방위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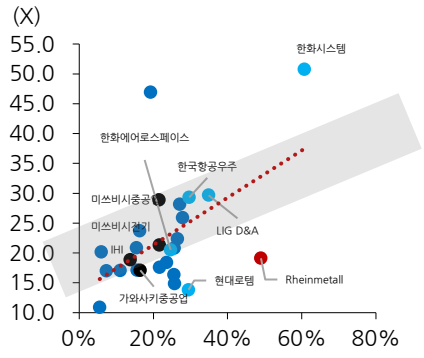
AI 로보틱스/방산/조선/운송 양승윤
6139 / syyang0901@eugenefn.com

일본의 무기 수출 해금, 한국 방산에 영향은?

업종투자의견 **OVERWIGHT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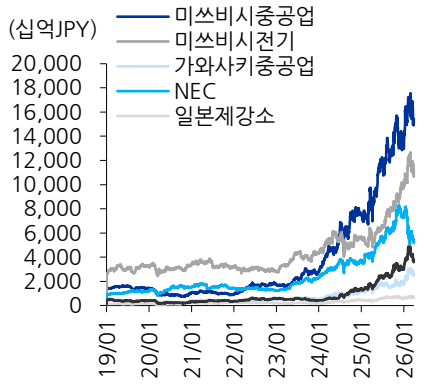
- 4월 21일, 일본이 올 봄을 목표로 추진하던 **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'운용 지침'을 개정하여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함.** 기존에는 살상 능력이 없는 5개 유형(구난, 수송, 경계, 감시, 소해)에 한하여 수출을 제한적으로 용인했지만, **이제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체계도 판매할 수 있게 됨.**
- 2022년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지정학 판도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**일본은 자국 방위 능력 강화와 방산 생산 기반 확립을 위해 자국 수요에 더해 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.**
- 금번 수출 승인 이전에도,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GDP 대비 2%로 상향 조정하고(2022년), 일본 방산 기업들의 수익성 구조 개선을 위해 내수 방산 이익률 상한을 8%에서 16%로 개정하며(2023년) 방산 역량 강화를 시도.
- **일본이 본격적으로 수출 무대로 나서게 되면서 한국 방산과의 경쟁 구도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.** 일본은 과거 한국의 전략과 유사하게 동남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구형 무기체계(레이더, 함정 등)들을 공여하며 접근 시도. 5월 일본 연휴에 일본 방위성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됨.
- 일본의 지리적 특성(4면이 바다)을 고려하면 해상 루트(Sea Lane) 및 공역 방어가 중요하며, 일본의 방위 전략도 이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있음. 즉, **항공기, 함정(수상함/잠수함), 미사일 체계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.** 반대로, 지상 체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.
- **한국 방산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할 분야도 항공기/함정/미사일 분야로 판단됨.** 다만, 항공기는 GCAP 전력화 시기가 2035년경으로 단기 경쟁 가능성은 낮고, 함정과 미사일 체계 또한 자국 수요가 높아 CAPA가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. **수출 레퍼런스 및 무기 체계의 성능 신뢰성 관점에서 한국의 우위는 지속될 것.**
- 일본의 방산 기업들은 CAPA 증설 진행 중이나, 이는 내수 수요 증가를 고려한 투자로, **수출을 고려할 시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충이 필요.**
- 일본 방산 기업들은 수출에 대해서는 '국가 주도'의 프로젝트인 점을 강조. **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하는 형태로 기업은 수동적인 관점.** 기업 레퓨테이션 등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모습도 확인. 즉, 수출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은 아님. 다만, 장기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은 존재.
- **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과 방산 협력이 진행 중인 점은 일본 방산의 강점.** 미국의 미사일 부족에 따른 확충 수요에 대한 수혜 가능성. 최근 미국과 일본이 인도-태평양 산업 회복력 구상(PIPIR)의 일환으로 고체 로켓 모터 공동 생산 프로그램에 착수.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과 SM-2 공동 개발과 패트리어트 라이센스 생산을 진행 중.
- 일본의 방산 수출 해금에도 한국 방산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. 다만, **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수출 노력 등 국가 차원의 관심은 필수.** 그리고, 단순 직수출 구조에서 공동 개발, 현지 생산 등 협력 수준도 한 단계 레벨업이 필요할 것.

25~28FY OP CAGR, 28FY P/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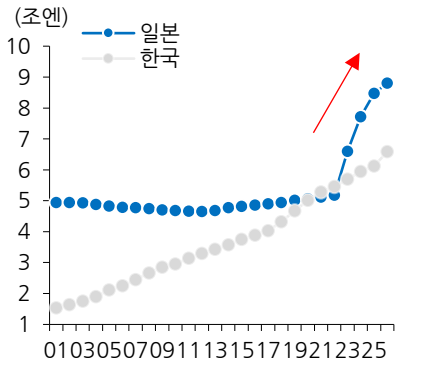
자료: 블룸버그, 유진투자증권

일본 주요 방산 시총 추이



자료: 블룸버그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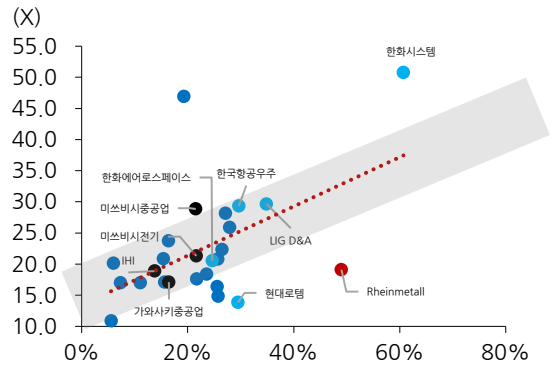
급격하게 늘어나는 일본 국방비



자료: 일본 방위성, 지표누리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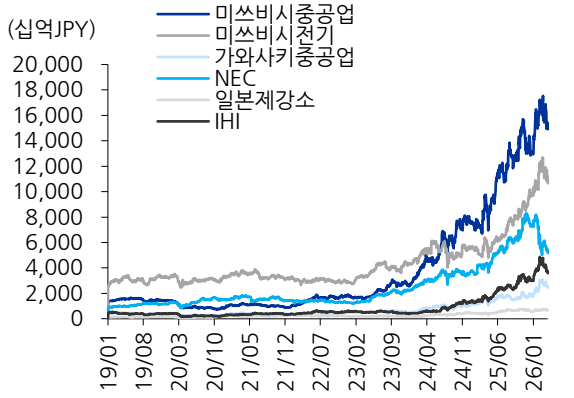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25~28FY OP CAGR, 28FY P/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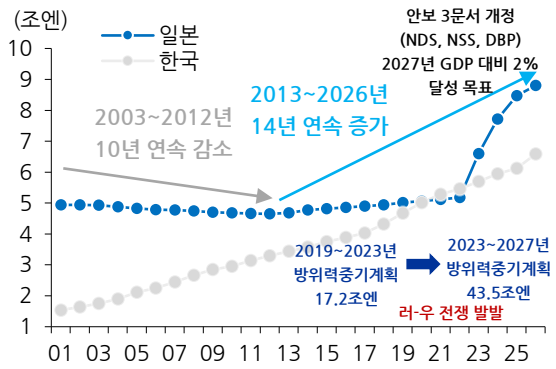
자료: 블룸버그, 유진투자증권

일본 주요 방산 기업 시총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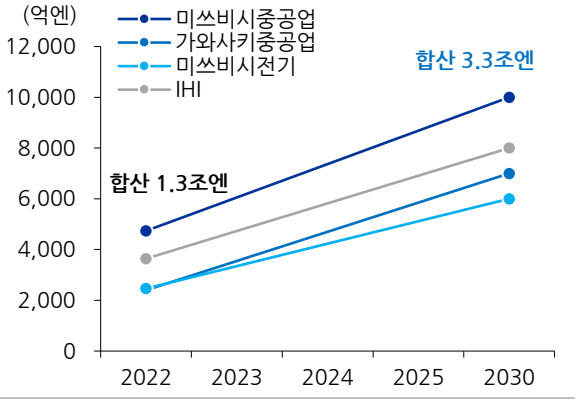
자료: 블룸버그, 유진투자증권

급격하게 늘어나는 일본 국방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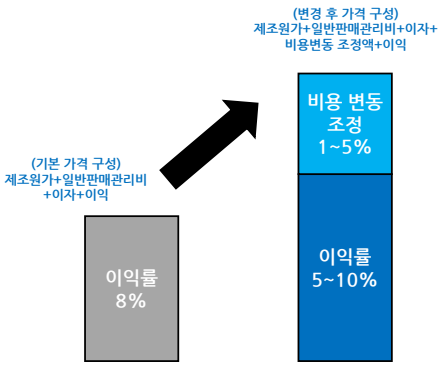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 방위성, 지표누리, 유진투자증권
주) 한국 국방비는 비교를 위해 엔화 환산(1 엔=10 원)

내수 증가로만 2 배 이상 성장(매출 전망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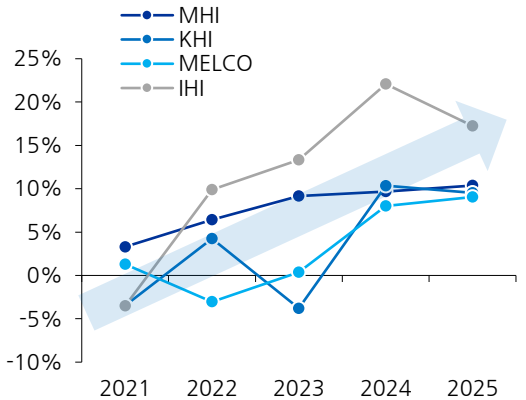
자료: 유진투자증권
주) MHI 방산 매출/KHI 방산 매출/MELCO 방위우주시스템 매출/IHI 항공우주방위 매출

2023 년 방산 이익률 산정 개정으로 수익성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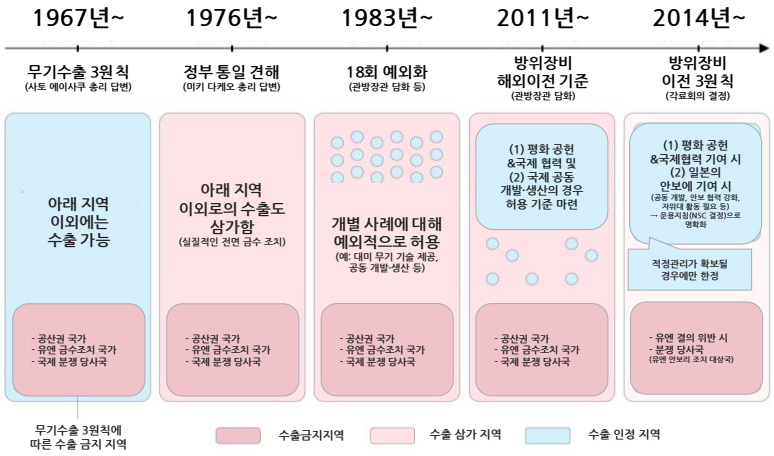
자료: 유진투자증권

일본 주요 방산 기업 OPM 2023 년부터 개선 중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일본의 무기 수출 원칙 변화



자료: 일본 정부, 유진투자증권

무기 수출 원칙을 둘러싼 최근 변화

주요 논점	2023년 12월 & 2024년 3월 주요 개정 사항
국제 공동 개발·생산	(개정) 파트너국이 이전한 완성품의 부품·기술을 제3국에 **직접 이전 가능** - (GCAP 限)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국제 공동 개발 완성품의 **제3국 직접 이전 허용** (단, UN 헌장 준수국 및 분쟁 당사국 제외 등 3가지 한정 조건)
라이선스 생산품 제공	(개정) 미국 외 라이선스 생산품(완성품도)도 **라이선스 보유국에 제공 가능** - 단, 분쟁 중인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제외
심사 및 프로세스	무기 직접 이전 및 제3국 이전 시 **NSC의 심의 및 공표를 기본**으로 함

구분	수출 확대를 위한 자민당 案
5개 유형 철폐 (구난, 수송, 경계, 감시, 소해)	살상력이 있는 '무기'를 포함하여 수출 해제
수출 대상국	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한정 ※전투 중인 국가는'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' 원칙적으로 금지
수출 심사	국가안전보장회의(NSC)에서 심사

자료: 일본 정부, 유진투자증권

일본의 주요 방산 기업과 담당 분야

구분	MHI	KHI	MELCO	NEC	IHI	JSW
육상 전투차량/장갑차	O	X	X	X	X	X
화포/포신/함포	X	X	X	X	X	O
항공기(고정익)	O	O	X	X	X	X
헬기	O	O	X	X	X	X
항공엔진	O	O	X	X	O	X
함정/잠수함	O	O	X	X	X	X
수중무기(어뢰 등)	O	X	X	X	X	X
미사일 완성체	O	O	O	X	O	X
미사일 발사장치/추진계/부품	O	O	O	X	O	O
레이더/감시센서	X	X	O	O	X	X
지휘통제(C4I)/전자전	X	X	O	O	X	X
통신/네트워크 방산	X	X	X	O	X	X
우주/위성	O	X	O	O	O	X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주) MHI: 미쓰비시중공업, KHI: 가와사키중공업, MELCO: 미쓰비시전기, NEC: 일본전기, JSW: 일본제강소

한국 무기체계 vs 일본 무기체계

한국 기업	한국 체계	체계 종류	일본 대응 체계	일본 기업
한화에어로	K-9	155mm 자주포	19식(차), 99식(궤)	JSW
	레드백	IFV	89식 장갑차	MHI
	천무	MLRS	(미국 면허 생산)	IHI
	K808	8x8 차륜장갑차	16식 기동전투차	MHI
현대로템	K-2	MBT	10식 전차	MHI
KAI	KF-21	4.5세대급 전투기	F-2, GCAP(개발)	MHI/IHI/MELCO
	FA-50/T-50	경공격기/훈련기	T-4 중등훈련기	KHI
LIG넥스원	천궁-II	중거리 지대공	03식 지대공	MELCO
	L-SAM	장거리/상층 요격	(미국 면허 생산)	MHI/IHI/MELCO
HD현대중공업 /한화오션	구축함	대형 수상전투함	아사히급 등	MHI
	호위함	중형 수상전투함	모가미급	MHI
	잠수함	재래식 잠수함	타이게이급 등	KHI/MHI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일본 방산 사업비 배분(7 대 중점 분야, 단위: 억엔)

구분	세부 분야	총 사업비	2023	2024	2025	2026	진척률
스탠드오프 방위 능력		50,000	14,130	7,127	9,390	9,733	81%
통합 대공 미사일 방위 능력		30,000	9,829	12,284	5,331	5,090	108%
무인 에셋 방위 능력		10,000	1,791	1,146	1,110	2,773	68%
영역 횡단 작전 능력	우주	10,000	1,529	984	2,119	1,352	60%
	사이버	10,000	2,363	2,026	2,615	2,306	93%
	차량·함선·항공기 등	60,000	11,763	13,391	11,385	9,906	77%
지휘 통제·정보 관련 기능		10,000	3,053	4,248	3,852	3,644	148%
기동 전개 능력·국민 보호		20,000	2,396	5,653	4,545	1,924	73%
지속성 ·강인성	탄약·유도탄	20,000	2,124	4,015	2,876	2,553	58%
	장비 유지정비·가동 확보	90,000	17,930	19,094	17,696	17,413	80%
	시설의 강인화	40,000	4,740	6,313	6,953	8,784	67%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일본 주요 방산 기업 CAPA 확대 현황(미사일 중심)

회사	증설 현황
미쓰비시중공업(MHI)	▪ 방산 부문 인력 채용(+30%) ▪ 증산을 위한 공장 건설을 추진 중(비공개) ▪ 2025년 11월 나고야 미사일 공장 준공(일부 가동 중) ▪ PAC-3 30기 생산CAPA(큰 투자 없이 2배 확대 가능)
가와사키중공업(KHI)	▪ 헬리콥터 및 호위함용 엔진 증산 투자를 진행 중
미쓰비시전기(MELCO)	▪ FY2025까지 추가 500명 채용, 누적 1,000명 증원 계획. ▪ 가마쿠라 공장·전자통신시스템센터에 생산동 8개 신설 (2025년 4월부터 순차 완공)
IHI	▪ 고체로켓모터 증산용 전용 생산시설 건설(군마, 2028년 완공)
일본제강(JSW)	▪ 히로시마 공장 생산능력 및 내재화 강화 투자 진행 ▪ 무로란 공장 AMV 및 미사일 발사관 증산 중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일본이 수출을 추진하는 주요 장비품 현황

장비품명	상세 내용 및 현황
경계관제 레이더	▪ 필리핀 수출 결정 완료. 일부 납품 완료
통신 안테나	▪ 인도 군함용으로 수출 조정 중
요격 미사일	▪ 미국이 개발하고 일본 기업이 라이선스 생산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계약 체결
호위함	▪ 호주와 차세대 함정 '모가미'급을 원형으로 하는 함정 공동 개발 제안
전투기	▪ 영국·이탈리아와 개발 중인 차기 전투기의 수출을 호주 등에 제안

자료: 언론보도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 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		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5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5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6.03.31 기준)